

Online Series

2020. 7. 6. | CO 20-12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오 경 섭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은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검토한다. 먼저 김정은 건강 위중설, 《노동신문》의 김여정 ‘지시’ 보도, 《노동신문》의 ‘당중앙’ 보도 등 3가지 근거에 기반한 김여정 후계자설을 반박한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공식적인 지위와 비공식적 지위를 통해 분석한다. 김여정의 공식적인 지위는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당 제1부부장이다. 김여정의 비공식적 지위는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 두 가지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여정은 김경희와 비교할 때,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매우 확대됐다. 그러나 김여정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기초해서 볼 때 2인자라고 볼 수 없다. 향후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김정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하, 당 제1부부장)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후계자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3가지다. 첫째, 김정은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신문》이 김여정의 지시를 수차례 보도했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신문》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중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각각의 근거들은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김여정 후계자설의 근거 1: 김정은 건강 위중설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주장은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김정은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37살에 불과한 김정은이 후계자를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후계자 지명은 매우 중요하다. 후계자 부재는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경우, 핵심 엘리트들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투쟁을 진행했다. 레닌 사후에는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스탈린 사후에는 흐루쇼프와 말렌코프가 최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권력투쟁을 벌였다.

또 김정은은 김일성 가계에서 세습하는 최고 권력을 백두혈통에 넘겨줘야 할 책무가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거치면서 제도화된 혈통승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규칙적인 승계(regular succession)다. 북한은 수령의 권력이 당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단 한 번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계자를 선출한 경험이 없다. 김일성 가문에서 최고 권력을 왕조식 승계방식으로 세습하는 부자승계가 고착화됐다. 김정은의 후계자는 당연히 김정은의 아들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아들은 너무 어려서 권력을 승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백두혈통에서 권력승계를 진행할 수도 있다. 김여정이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유다.

그러나 김여정 후계자설의 핵심 전제인 김정은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다는 증거는 없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데일리NK가 4월 20일 김정은이 심혈관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김정은이 4월 12일 평안북도 묘향산지구에 있는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시술을 받은 후 향산특각에서 치료중이고, 김정은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의료진 대부분이 19일 평양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의 요지는 김정은이 간단한 심혈관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는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연례적으로 참석했던 김정은이 불참하면서 증폭됐다. 그런데 미 CNN 방송이 4월 21일 김정은 중병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건강문제가 일파만파 커졌다. 김정은 중병설은 김정은이 잠행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잦아들었다. 김정은은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고, 6월 7일 정치국회의, 7월 2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김정은 건강상태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이 있고, 고도비만·흡연·과로·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더라도, 김정은 공개 활동이 이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건강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김정은은 매년 5월 기준

평균 50회 정도의 공개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66% 줄어든 17회에 불과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중병을 앓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은 건강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여정 후계자 주장은 성급하다.

김여정 후계자설의 근거 2: 《노동신문》의 김여정 ‘지시’ 보도

일부에서는 《노동신문》에서 김여정의 지시를 수차례 공개한 것은 김여정이 후계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신문》 6월 5일자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담화’를 실었다. 《노동신문》에서 수령도 아닌 김여정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4조 7항에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 6월 9일자 보도에서는 김영철과 김여정이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력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기사에서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력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릴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북한 매체들은 ‘김여정이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김영철과 김여정이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여정의 지시와 김영철·김여정의 지시를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10대원칙 4조 7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김여정과 김영철이 개별적 의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비준한 수령과 당의 방침을 하급 단위에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는 김여정이 후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령과 당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여정 후계자설의 근거 3: 《노동신문》의 ‘당중앙’ 보도

일부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김여정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점에서 《노동신문》에서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 6월 7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란 기사에서는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6월 10일 ‘주체조선의 절대병기’란 기사에서는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라고 언급했다. 6월 11일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이다”라는 논설에서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원래 당중앙은 후계자 김정일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제5기 제8차 당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된 후 당내에서 ‘당중앙’, ‘친애하는 당중앙’으로 불렸다. 최근 《노동신문》에서 사용하는 당중앙도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후계자인 김여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신문》에서 당중앙을 사용했다고 해서 당중앙이 김여정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신문》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김정은과 당중앙위원회를 가리키는 의미로 당중앙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8일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당중앙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김정은이 발표한 사업총화보고에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이라는 표현,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파괴하고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라는 표현, “오늘 당중앙을 유일중심으로 하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018년 1월 1일자에서는 ‘2018년 신년경축공연 《조선의 모습》 진행’이라는 기사에서 “위대한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같은 날 ‘태양조선의 광휘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환희의 불보라’라는 기사에서는 “위대한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과 당중앙위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당중앙을 수차례 사용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최근 급부상한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무엇일까? 김여정은 북한 권력의 2인자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김여정이 맡고 있는 공식적인 지위와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해야한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공식적 지위

김여정의 공식적인 지위는 당 제1부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김여정은 2019년 12월 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소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여정은 2014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시작해서 2017년 10월 정치국 후보위원에 올랐고 2018년 2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으므로 2019년 12월에도 선전선동부보다 당내 위상이 높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김여정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6월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 나타난다. 통전부 대변인 담화는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밝혔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직책은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대남사업 실무부서인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서기실 소속 제1부부장일 수도 있다.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서기실 제1부부장의 역할은 대남사업에 국한된다. 이 경우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대남사업 부문으로 제한된 셈이다.

셋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는 대남사업 부문을 지도할 수도 있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자격으로 대남사업을 총괄한다면,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매우 커진 것이다. 김여정은 당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 간부로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면서 대남부문의 조직생활을 장악하고, 대내외 정책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김여정은 조직지도부를 발판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간부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대남사업 부문에서 공식적인 위계관계는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구 대남사업담당비서), 김여정 제1부부장,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순이다. 이는 《조선중앙통신》 6월 9일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력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기사에서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력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릴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김여정 순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당의 공식적인 직급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정치국 위원인 김영철이 당 제1부부장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에 비해 높다. 그러나 실제 대남사업 부문에서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은 반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장금철 부장 순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장금철 부장이 김여정을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정과 김영철의 관계는 1976년 10월 이후 김정일 정권에서 김용순 국제비서(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와 김경희 국제부 부부장의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장엽 전 비서가 증언했다. 당시 김용순은 국제부 사업을 총괄했다. 그러나 김경희는 김용순과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국제부 업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제부를 총괄하는 지위가 아닌 김경희조차도 국제부 업무를 총괄하는 김용순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김여정은 대남사업 부문에서 김영철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비공식적 지위

김여정은 김정일의 여동생이라는 비공식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김정일이 지배연합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은 여동생인 김여정이다. 김여정은 언제나 김정일을 만날 수 있고,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김정일은 김여정에게 각종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심엘리트들은 김정일에게 정치적·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김여정에게 접근할 것이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김여정의 주변에는 신분상승이나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희가 국제부 부부장으로 있을 때도 김경희 주변에는 신분상승이나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들끓었다고 한다. 김여정은 김경희에 비해서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훨씬 높다. 김여정은 권력과 부를 축적하면서 각종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북한 엘리트들은 김여정을 특별 대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장엽 회고록에 따르면, 조직부와 선전부 요원들은 양형섭·허담이 수령의 가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환상을 가지고 대했다고 한다. 수령의 여동생인 김여정에 대한 엘리트들의 환상은 훨씬 클 것이다.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김여정의 발언은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의 2인자 가능성

그러나 김여정은 2인자일 가능성이 낮다.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는 2인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제도화된 후 2인자는 두 명이었다. 이들은 1985년 이전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과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당에서 공인한 후계자였다. 황장엽 전 비서는 1985년 이후에는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김정일이 당·정·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는 북한 권력 내에서 2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2인자나 파벌 등장을 막기 때문이다. 10대원칙에는 2인자 등장과 파벌 형성을 막는 여러 조항들이 있다. 4조 7항은 개별적 간부들이 당의 사상·로선·방침들을 왜곡전달하거나 자의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6조 3·4·5항은 개별간부들에 대한 환상·아부아침·우상화, 종파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를 금지함으로써 파벌 형성을 차단한다. 9조 5·6·7항은 개별적 간부들이 당·정권기관·근로단체들의 조직 회의를 자의적으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을 내는 행위, 사회적운동 조직 형성 행위, 친척·친우·동향·동창·사제 관계 등 정실·안면관계·돈·물건에 따라 간부문제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등용·해임·처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장성택은 당행정부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김여정도 10대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김여정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10대원칙을 준수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2인자로 부각되지 않아야 한다.

향후 김여정의 위상 변화: 김경희와 비교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경희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경희는 당 국제부 부부장(1976년 이후)과 당 경공업부장(1987년 이후)을 맡았다. 2009년 이전에 단 한 번도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같은 핵심 부서에 배치된 적이 없었다. 김정일이 김경희의 정치적 역할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김경희는 김정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김경희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힌 것은 김정일이 2008년 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진 후이다. 김정일은 김경희를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세웠다. 김경희는 2009년 6월 당 부장에 임명됐고, 2010년 10월 정치국 위원과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됐다. 김정은 권력세습 직후인 2012년 4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임명됐다.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역임하고 당 제1부부장 자격으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김경희에 비해 훨씬 크다. 또 김여정은 김경희와 달리 김정은의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서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김여정은 남북·미북·북중정상회담을 대부분 수행했고, 2018년 남북 대화국면과 최근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인자설이 대두됐다. 그러나 김여정은 2인자로 보기 어렵다. 김여정은 당 제1부부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로열패밀리라는 비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대내외 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

향후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김정일 정권 하에서 김경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달렸다. 김정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김여정의 역할은 확대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조직지도부·국가보위성 등 핵심 통치기구에 배치한다면, 김여정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김여정의 역할을 대남·대외사업 부문으로 제한한다면, 김여정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